

# 철도노조 14일 총파업...광주·전남 여객·물류 차질 예고

### 18일까지 호남선 등 여객 열차 운행 38% 감축...KTX 24회 줄어 철도노조 "국토부·코레일, SRT 축소 문제 등 교섭 성실히 임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 여파로 광주·전남 여객·화물열차가 축소 운행될 예정이어서 여객·물류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철도노조가 14~18일까지 예정대로 파업하면 호남·전라·경전선 여객 열차 운행은 평상시 대비 62%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업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 비노조원과 필수 유

지업무 인력만으로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KTX고속열차는 기존 하루 운행 횟수 78회의 69.2%인 54회만 운행한다. 호남선 목포역을 오가는 고속열차는 39회에서 23회로 줄고, 전라선 여수엑스포역 운행 열차도 32회에서 23회로 축소 운행한다. 일반열차 운행 횟수도 호남·전라·경전선을 합해 기존 158회에서 파업 기간 98회로 감축해 평소의

62%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기존 목포역에서 18회, 광주송정역에서 18회 운행하던 호남선 일반열차는 각각 목포역 10회, 광주역 10회만 운행한다. 여수엑스포역 전라선 운행 열차도 기존 30회에서 16회 운행으로 감축한다. 경전선은 광주역에서 6회, 순천역에서 6회 운행하던 열차를 각각 광주역 3회, 순천역 3회로 줄인다. 화물열차 운행 횟수 또한 기존 하루 29회에서 철강 2회, 프로필렌 1회 등 총 3회로 축소된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9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조합원 1000

여명과 함께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총파업이다. 노조는 호남선SRT 축소운영 철회 등 구안이 수용되지 않자 이번 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서는 수서행 KTX투입 및 고속철도 통합, 호남선SRT 축소운영 철회,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열차(SRT) 노선 확대 철회, 철도민영화 중단, 4조 2교대 근무 체계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코레일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 호남선 SRT 축소, 무리한 수서발 SRT 노선 확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고,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총파업 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 지역 16개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1시 순천시 덕암동 순천역광장에서 총파업을 지지하고 철도 분할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필수 근무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열차 운행 중단을 최소화하고 승객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문화전당역사 싱그럽네 시민들이 12일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역 일대에 조성된 실내정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산림청 주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0억원을 투입, 역사에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전보 광주고객센터 갑질·직원 사찰 조사를"

### 노조,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건강보험고객센터 광주지부 노조가 직장 갑질과 직원 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공공연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노조)는 12일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에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공문서 위조, 사찰 지시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장갑질로 사측에 신고해 사측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가 진행됐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며 진정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고객센터 직원 A씨는 지난 8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직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A씨는 공문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직장내 진상조사위 구성·조사 착수, 진상조사위에 노조위원 참여 보장, 가해자 분리 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했다. /김대인 기자 kdi@

## 전남교육청, 모든 초등생에 '교육수당' 지급

### 내년 3월부터 매달 5만~10만원

전남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12개월간 전남지역 모든 초등학교생에게 지역에 따라 매달 5만~10만원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원한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민선 4기 핵심 정책이다. 도 교육청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교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그 외 6개 시·군지역 초등학교생에게는 5만원을 바우

처카드 지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당초 이 사업을 민선 4기 핵심 정책으로 삼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선택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은 인구 소멸 지역과 더불어 학교 소멸 지역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교 소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꿈 실현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전남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길을 전남도교육청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 북구, 내달 20일까지 '일자리 매칭데이'

광주시 북구가 다음달 20일까지 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전남대학교 JOB FESTA'와 연계 추진된다. 온라인 일자리 매칭은 10월 20일까지 잡코리아 사이트에 개설된 북구 전용 채용관을 통해 이뤄진다.

일자리 매칭 절차는 참여기업이 온라인채용관에 구인 정보를 게시하면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확인 후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전남대 컨벤션을 일원에서 공기업 6개, 우수 중소기업 14개 등이 운영하는 현장 채용부스 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전남 건축물 지진 대비 '취약'

### 내진율 광주 18.6%·전남 10.6% 불과

광주와 전남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이뤄진 건축물 비율이 각각 18.6%,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안전국가라고 평가되던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수 천명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도 지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광주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물(12만4304동) 중 18.6%(2만3142동)만 내진보강이 이뤄졌다.

광주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27.1%(2576동 중 699동)지만 민간 건축물은 18.4%(12만1728동 중 2만2443동)에 그쳤다. 내진율은 보강이 완료된 비율이다. 전남은 54만 195동의 내진설계 대상 5만 7189동만이 내진보강이 완료됐다. 전남 공공기관은 16.5%(1만6890동 중 2692동)의 내진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0.4%(52만 3905동 중 5만4497동)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국 건축물 평균 내진율(16.4%)에 못미쳤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건축물 내진설계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국토부가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견폐율이나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 의원은 "모로코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전형일: 2023. 10. 6(금)  
전형일: 2024. 1. 19(금)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